

부천



CULTURE CITY BUCHEON

문화도시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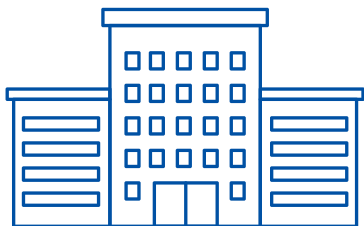
문화도시수원

수원



문화도시 의정부

의정부



부평 부천 영등포 수원 의정부

문화1호선, 지역으로 더 깊고 더 넓게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기반으로 2020년 문화1호선 프로젝트가 공식화되지 4년차. 부평, 부천, 영등포가 축이 되었고 21년 수원, 22년 의정부가 합류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을 매개로 경인지역, 경주지역,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지역문화의 각자 따로 또 같이(멜팅팟이자 샐러드볼) 연대할 수 있는 끈을 확보한 셈이다.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1호선은 수도권 광역 도시개발과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며 주요 역사가 유흥소비중심의 역세권을 형성하는 거점으로서 도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토대로 부평, 부천, 영등포가 문화1호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까지 이어지는 전철 1호 선은 2023년 12월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연장되어 총 102개의 역, 218.9km에 이르게 된다. 수도권의 형성과 성장이 전철 1호선의 확장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그 과정은 광역도시 개발,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역사의 민자 역사화로 나타난다. 상업공간 및 시설들에 비해 역사는 단지 이동통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들의 역과 전철서비스 수준도 갈수록 열악해졌다. 타고 싶지 않은 1호선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다. 덧붙여 이용승객도 고령화되고 제조업 기반이 큰 지역일수록 외국인노동자들도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1호선 프로젝트는 움직이는 전철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다. 시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주요 역사를 지역문화플랫폼으로 삼아 서울 집중의 '강요된 이동'에 의해 시민의 삶이 질곡당하는 현실을 바꾸어보려는 실천적 지향을 담고 있다. 도시를 개발하는 대신 도시의 삶을 개발하자는 카롤로스 모레노 교수의 15분 도시와도 맥이 닿아있다. 광역개발에 따른 지역순환의 생활체계 및 문화생태계 외해에 대응하여 전철 1호선 역사와 연계한 문화역세권 복원을 통해 문화근접성과 지역다양성을 확보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문화근접성과 지역 기반의 문화다양성이 문화1호선프로젝트를 규정하는 핵심키워드이다. 그렇

기에 열악하고 나쁜 겉모습 이미지를 치장,개선하자는 단순한 시민캠페인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사업 방식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우려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설계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자칫 주어진 예산과 실무력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오히려 실적 위주의 걸치레사업에 매몰되는 위험성을 경계함이다. 4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처음의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사업내용을 점검해야 하는 반환점에 서있다

무엇보다 사람, 공간, 활동 세 축을 통해 부평역, 부천역, 영등포역이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민, 예술인, 크리에이터,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네트워크와 함께 유흥소비지화된 역세권을 문화역세권으로 재생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역과 역을 이어 지역문화플랫폼을 연결하는 문화1호선 프로젝트의 광역화를 실제화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역세권에 대한 R&D와 함께 지역문화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킹한다는 목적을 정교하게 풀어낼 사업으로 구체화해야만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2025년부터는 부천을 필두로 매년 법정 문화도시들이 하나씩 해제된다. 자칫 사업동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는 시기이다.

'타고싶은 1호선 열차방송 캠페인'은 지역 공동사업으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목적과 방향성,기대효과가 불명확하다. 이제 주요 역사와 역세권이라는 장소성,지역성을 기반으로 시민 주도의 틀로 전환하여 법정문화도시 해제 이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나 소모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또한 문화역세권이라는 프레임속에서 다시 포지셔닝하고 지역문화를 향한 미래지향적 실천 전략성을 세워야 할 때다. 지나간 지역의 역사와 변천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해석력을 키우고 일의 맥락을 찾기 위한 기초작업일 뿐 문화도시사업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1호선을 통한 '강요된 광역이동'의 문제를 최소한이나마 완화하여 시민들의 문화체감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문화1호선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동이 집중되는 주요 역사들은 그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70년대 이후 환승기능, 개발에 따른 중간역 증가 등 변화를 읽어내고 달라진 고령화, 외국인노동자 등 달라진 승객수요들을 파악하여 지역문화와의 연관고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내년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기 주도성에 의지해서 폭넓은 연대, 더 깊은 지역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전략을 실천해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역의제 수립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1호선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이 개통된다. 그렇게 시작된 '지하철 1호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각양 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실새 없이 타고 내리면서 삶의 애환을 묻어놓은 의미 있는 장소인 셈이다.

특히, 경기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며 도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1호선'은 노후화, 고령화된 노선으로 인식됐고, 열차에 대한 오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씻어내야 할 숙제가 됐고, 그 출발점에서 '문화1호선'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서민들의 바쁜 일상에 기꺼이 빠른 발이 되어 주고, 한결 같이 우리네 인생을 응원하며 함께 달려온 '1호선'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야말로, 지금의 우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나아가 '1호선' 도시의 역사성과 지역성, 장소성을 문화적 가치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문화 재생의 초석을 다지고, '공동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문화1호선 1호선으로 이어진 5개 문화도시 이야기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발행인 김현광(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최용진(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기획 송현수(정책기획팀장)
 인쇄 브레인 애드컴

6



문화1호선에 대하여

2023 문화1호선

7



2023 문화1호선 출발 합니다

- 공동 슬로건 <좋은 일이 있어요>
- 업무협약식
- 공동 콘텐츠 <도시 읽어드립니다>

10



2023 문화1호선 운행 합니다

- 전철역에서 만난 작은 행복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한 <좋은 일을 만들어요>
- 수원역
<제로웨이스트 공방> with 묘책
 - 부천역
<1호선 출퇴근러를 밝혀주는 공예프로젝트> with 두두리스튜디오
 - 부평역
<대화의 조각:직장인들은 묻고 싶었습니다> with DIMO
 - 영등포역
<마음속의 구조들:Internal structures> with 박재환 작가
 - 의정부역
<어메이징 1호선> with 1to75

32



2023 문화1호선 종착역입니다

- 결과 공유회

33



2023 문화1호선 연장 운행

- 문화1호선 스탬프투어



부평

부천

영등포

수원

의정부

문화 1호선에 대하여

‘문화1호선’은 수도권을 잇는 1호선에 대해 도시 및 산업의 재구조화와 연계한 역할 재조명을 위해 수원과 부천, 부평, 의정부, 영등포 등 5개 법정문화도시가 함께하는 협력프로젝트다.

경기와 서울을 잇는 물리적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류, 문화 등 정서적 노선까지 ‘1호선’에 결합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문화 재생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1호선은 7~80년대 산업화 과정을 지나 현재는 낙후되고 혼잡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노선을 따라 형성된 주변 도시는 오랜 세월 축적된 문화에서 나온 고유한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본연의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각각 나름의 문화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결국, 지역문화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1호선 주요 역에서 펼쳐지는 문화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감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의 가치 향상이 라는 성과로 이어짐은 물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제공해 ‘행복한 이동’의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 의미가 깊다.

특히, 문화도시 수원·부천·영등포·의정부·부평은 단순히 물리적 교통수단인 ‘전철’로 연결된 도시에 그치지 않고, 법정 문화도시로서 ‘문화1호선’으로 불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 예술인이 다른 도시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색다른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 간 교류를 넓히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문화1호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2023 문화1호선

출발 합니다

공동 슬로건

좋은 일이 있어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좋은 일이 있어요’에서는 전년도에 진행한 1호선 차내 및 도시별 역사 방송 등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도시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도시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객차 및 역사 송출 메시지 음원 제작 및 개별 포스터 디자인 제작, 통합본 수정 등은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맡았고, 홍보물 및 메시지에 대한 코레일 감수와 차내 및 역사 등 코레일 촬영 협조 요청 등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진행했다.



출발 합니다

업무
협약

철도 1호선의 부설로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해 온 역사적 가치를 미래적 가치로 이어가기 위한 '문화1호선' 도시교류사업에 5개 도시가 뜻을 모은 건 지난 6월이다. 앞서 2022년에 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온 수원과 부평, 부천, 영등포에 이어 의정부가 합류하면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 구성원의 문화적 권리 증진 협력 ▲문화도시 공동 이슈 발굴 및 담론 강화 ▲도시 간 프로젝트 기획 운영 ▲도시 간 문화자원 공유 및 활용 협력 ▲도시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등이다.

이후 (재)수원문화재단, (재)부천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재)영등포문화재단, (재)의정부문화재단(이하 공동협력기관)은 '문화1호선'이라는 도시교류사업 추진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들 공동협력기관은 '문화1호선'의 가치에 대해 '경기지역과 서울을 잇는 이동 수단이자 사람과 물류 그리고 문화를 잇는 길'로 정의하고, 물리적·정서적 호칭의 '1호선'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잇는 '문화1호선'으로 바라본다.

특히, '문화1호선' 도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공간, 자원 활용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매년 주관도시 선정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올해 '문화1호선'의 주관 도시는 수원으로,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민과 예술인이 다른 도시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편, '좋은 일이 있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지난해 '문화1호선'에서는 열차 내 방송을 통해 문화도시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 전달, 각 도시의 맛집탐방인 '실천미 식회' 등의 교류 사업을 펼쳤다.



공동
콘텐츠

도시
읽어드립니다

1호선을 통한 도시의 확장과 역사에 맞춰 문화도시로서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CJ ENM 유튜브 채널인 사피엔스 스튜디오(구독자 190만 이상)와 협업한 사업이다.

'도시 읽어드립니다'라는 포맷으로 도시문화학자인 김시덕 박사가 '문화1호선' 각 도시를 테마로 현장형 강연을 진행, 5개 문화도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철도를 통해 5개 도시의 역사를 관통하며 문화로 이어가는 미래 구상을 담았다.

1호선 중심의 도시 확장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또한,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는 5개 문화도시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수원편은 철도 발전에 따른 도시의 확장과 수원의 근현대사를 토대로 수원이 역사의 도시, 철도의 도시, 농업의 도시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과거와 현대를 흥미롭게 재조명했다.

구성안 검토와 촬영 협조, 각 도시별 제작사와의 계약 체결은 부평·부천·영등포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담당했고, 제작진이 참여하는 각 도시별 회의 진행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주도했다.





운영 합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요

5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가 1호선을 통해 도시를 넘어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문화1호선'과 연계한 도시 문제를 발굴해 대상에 맞는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의 테마는 지난 6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고, 로컬크리에이터는 8월 4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각 도시별 로컬크리에이터들은 8월 18일 합동 워크숍을 가졌고, 이후 각각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화도시부평
Cultural City Bupyeong



CULTURE CITY BUCHEON
문화도시부천



문화도시수원



문화도시영등포



문화도시 의정부



문화1호선

부평 부천 영등포 수원 의정부

분당선 수원



#1

수원 행궁동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공방 '묘책'은 퇴근 후 만나는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만의 방법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퇴근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로 했다.

10월 6일 첫 번째 프로그램 '아로마 향기 솔솔 실용적인 오브제-아로마큐브 만들기'를 시작으로 총 6번을 수원역에서 퇴근한 직장인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2회차 프로그램은(10월 11일) '여행갈 때 동글동글 샴푸바 만들기'로 미리 소분해 놓은 샴푸바 재료에 아로마, 천연분말 등 원하는 재료를 첨가한 후 배합하고 손으로 반죽해 만드는 체험이었다. '플라스틱 없는 샤워 도전'이라는 재밌는 도전주제도 좋았지만, 원하는 색깔과 모양으로 빛은 예쁜 샴푸바를 만드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

3회차 프로그램은(10월 13일)는 퇴근 후 힐링을 위한 의미를 담아 '힘든 하루도 마무리는 특별하게, 미니 입욕제 만들기'가 진행됐다.



● 조각조각 나만의 ‘업사이클 모빌’ 만들기(10월 18일)

페플라스틱을 녹여 만든 시트에 그림을 그리고 잘라, 흔들흔들 업사이클 모빌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원하는 색깔 시트를 그린 모양대로 자른 다음 철사에 연결해 완성하면 끝.

● 마음대로 골라 조립하는 DIY ‘업사이클 키링’(10월 19일)

5회차 체험으로 진행된 업사이클 키링은 병뚜껑을 녹여 미리 만들어둔 업사이클 키링 펜던트를 고르고, 부자재를 조립해 원하는 조합으로 직접 만드는 DIY 체험이다.

● 반려식물 식집사 도전! ‘업사이클 화분 키트’ 만들기(10월 20일)

미리 만든 페플라스틱 화분(트레이)에 흙(펠릿)과 원하는 식물의 씨앗을 넣어 만들어가는 체험이다.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 화분’의 색깔을 골라 씨앗을 심어보는 것이다. 완성한 화분을 키우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 이고운 대표

“출·퇴근을 할 때 사실 대부분 핸드폰만 하는 게 좀 삭막하잖아요. 환승 시간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잠깐 짬을 내서 체험하고 가면 재미있을 거 같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고운 모책 대표의 말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공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지원사업을 보고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특히, 지하철 이용자 외에 기차를 기다리는 다른 지역의 분들도 수원에서는 이런 행사도 하는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호선은 출퇴근할 때 자주 이용하고 있다. 시댁도 안양이고, 서울 갈 때도 1호선을 많이 이용한다”며 1호선이 제일 익숙하고 편안하며, 다른 노선은 잘 모른다고 한다. 또, “1호선 추억은 크게 없지만,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로 올라갈 땐 1호선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며 자신 역시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제로웨이스트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 대표는 환경문제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이유다.



부천시

부천



#2

부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로컬크리에이터는 부천에서 태어나 33년 이상 거주 중인 토박이면서, 부천에서 금속공예 공방 두두리스튜디오의 박진영 대표이다.

그 역시 출·퇴근할 때 1호선을 많이 이용했고, 지금은 7호선이 생겨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용객 많고 최고의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출·퇴근하는 이들에게 '힘들지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의미의 펜던트 만들기였다.

그는 "펜던트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반짝거리고 잘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다가 너무 예쁘다며 가져가는 모습이 좋았고 재미있었다. 어떤 어르신은 부인을 주겠다며 가져가셨다"고 말했다.





○ 당신의 일상에 날아온 행운의 돌

1호선 출퇴근러를 밝혀주는 공예프로젝트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1호선에 사연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직장인'이고, 또 하나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초년생, 시니어 직장인들'이었다.

첫 번째 주제는 '당신의 일상에 날아온 행운의 돌'을 주제로 한 청년 직장인 대상의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액세서리 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부천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우선은 사전 영상과 홍보를 통해 부천역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액세서리 키트 2개와 응원의 메시지를 쓸 수 있는 편지지를 제공해 1개는 가져갈 수 있게 했고, 나머지 1개는 부천역 내에 설치된 수집함에 기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회차에서 최종으로 기부받은 액세서리는 응원이 담긴 편지와 함께 역사 내 설치된 쇼케이스에 전시 및 비치해 응원이 필요한 청년 출퇴근러에게 대여했다.



○ 당신들의 일상을 생각하며(클래스 운영)

사회 초년생 직장인 및 은퇴를 앞둔 시니어 직장인들이 참여 대상이었다. 이들은 2개의 목걸이를 제작해 하나는 갖고, 하나는 상대방(초년생, 시니어)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쇼케이스 전시 및 대여에 사용됐다.

1주차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 직장인들을 위한 목걸이 제작 클래스가, 2주차는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한 목걸이 제작 클래스가 각각 운영됐다.

대여 형식의 쇼케이스는 사연이 담긴 혹은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시했는데, 이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벽 부착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평역



#3 부평역에서는 디지털과 모니베이션의 합성어 프로젝트팀 'DIMO'(구성원 김윤수, 김기락, 여해인, 조한결)가 부평의 직장인들과 만났다.

DIMO의 프로젝트는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부평구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을까? 참여형 전시 프로젝트, '대화의 조각 : 직장인들은 묻고 싶었습니다'이다.

서로간의 대화가 단절된 사회 속에서 참여형 공공예술을 통해 질문과 대화를 통한 관계 맺기를 시도한 작업으로 이들은 "좋은 일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화가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런 게 우리에게 정말 큰 즐거움이 됐던 거 같은데, 그렇게 사람 얼굴을 보고 아니면 이웃 간에 대화를 하는 게 요즘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나눠 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즐거움을 드린 거 같아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직장인들이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면 시민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부평역 지하사가 곳곳에 등장한 모니터와 QR코드를 통해 부평역 전체에서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조각처럼 흩어진 참여자들의 답변들은 프로젝트 종료 후 아카이빙 과정을 거쳐 다시금 뭉쳐졌다. 마치 모자이크나 플라쥬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대화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부평의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만들게 된 셈이다.

차이나타운에 다녀오는 길이라는 전우명 군(11)은 "너무 재미있었다"며 "부자되는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열린 프로젝트’ 다양한 언어 사용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 중 하나는 접근성이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어를 사용 사람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미얀마(부평 근처 미얀마거리가 있어 많이 사용함) 언어를 지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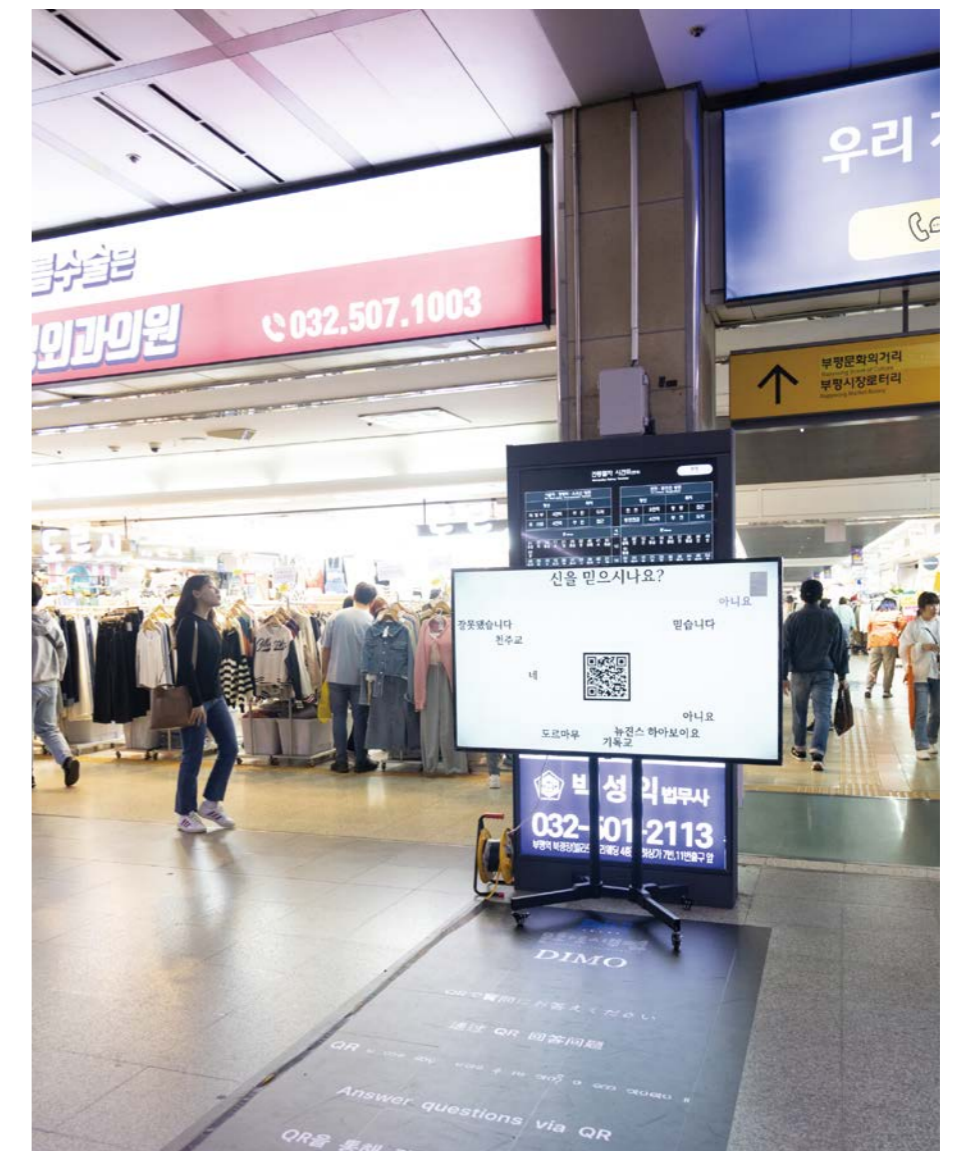
10월 14일과 15일, 부평역 및 지하상가에 7대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 모니터에 시민들로부터 제공 받은 ‘이웃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57가지’와 QR코드를 찍은 뒤 그 답변은 바로 대형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해 다른 사람들과 질문에 대한 소통 및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복되거나 비슷한 것들은 색깔이 바뀌거나 글자크기가 커지는 등의 재미 요소를 더하기도 했다.



● 프로젝트 진행팀, ‘디모’

디모팀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윤수 씨는 “저희의 기획대로 대화의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고, 팀원들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답변을 보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이어 “부평이 음악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음악과 소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런 소리들이 우리가 평소에 서로 대화하고 말하는 것들도 하나의 소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문화1호선

영등포



#4

하루의 시작은 상쾌하고, 일과가 끝나 저녁이 되면 편안함을 느껴야 정상이지만, 직장인들의 출·퇴근은 열차를 기다리느라 지루하고 사람에 치여 힘들다.

빠야양~ 열차 들어오는 소리에 반가운 기색이 역력한 이들에게 그만쯤이나 위로가 되는 뜻밖의 선물을 건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회사원들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사건을 기대하며 휴가철을 기다린다. 그래서 도심 속 일상에서의 위안이란, 무더위에 살짝 부는 바람, 퇴근길 하늘의 노을, 전경련 빌딩에 반사되는 차량들의 반짝이는 불빛처럼 스쳐 지나듯 짧고 아쉬울 뿐이다.

영등포의 문화1호선 로컬크리에이터 프로젝트는 박재환작가의 '마음속의 구조물 Internal structures'는 지친 직장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이다.

'마음속의 구조'란, 여의도의 빌딩 그리고 사람들의 퇴근하고 싶은 마음과 놀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가질 때, 걸로 드러나는 외형과 다르게 속에서 이뤄지는 어떤 생각과 사유의 구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구조를 시각화했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작품의 구조는 약간 상들리에 같기도 하고 촛대 같기도 한데, 이것은 여의도 빌딩을 상징한다. 낮에 보면 직육면체의 삭막한 형태지만 밤이 되면 노랑, 분홍, 빨강 등의 빛들이 막 뒤섞여 혼란이 일어나는 비정형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 '마음속의 구조' 역시 비슷한 색감과 구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겉으로 보면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있을 시민들의 속마음을 반영한 작품인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박재환 작가는 “솔직히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지 몰랐다.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젊은층까지 계속 말을 걸면서 ‘이게 뭐냐’, ‘작품명이 뭐냐’ 물으시고, 리플렛도 달라고 하셨다”며 놀라웠다고 했다. 특히, 사람들이 떼어 갈 수 있도록 붙여놓은 문구는 준비를 많이 했지만 누가 가져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가져갔단다.



박재환 작가는 “제가 영등포구에 사는데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마주하는 빌딩이 있다. 그 빌딩은 밤이 되면 사무실에 불이 켜지고 사무실 유리 표면으로 자동차 후미등의 불빛이 비추는데, 이 유리면을 사이에 두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불빛과 자동차로 퇴근하는 불빛이 서로 부딪치면서 투쟁하는 것처럼, 마치 이 건물을 차지하듯 싸우는 느낌이었다”면서 “그 빌딩이 가지는 정체성이 두 가지로 상승 되는 느낌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퇴근을 기다리고, 또 그 후를 상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작가 자신도 몇 년 전 힘든 업무를 끝내고 귀가를 위해 종각역으로 가던 중 우연히 들린 조계사의 붉은 연등은 갑자기 나타난 마법의 공간처럼 자신을 즐겁게 했고, 그 철나의 일탈은 몇 년째 강렬하게 가슴에 남아있었다. 특히, 때마침 들었던 풍경소리와 방울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기에, 이러한 경험을 지친 직장인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한다.



문화1호선

의정부



#5 '어메이징 1호선 이번역은 의정부역입니다.' 의정부 지역로컬크리에이터로 참여한 '1TO75'는 도시의 브랜딩을 지역의 청년들과 협력해 각각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군대 동기와 후임 등 군대에서 만난 20대 친구들이 주축으로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재능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가 고향인 안지훈 대표는 "우선 의정부에서 도시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경기북부 최고의 로컬크리에이터가 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생각하기에 의정부역은 경기북부의 약속장소다. 특히, 또래들한테 더욱 그렇단다. 의정부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는 사람들은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약속장소인 서울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17일까지 4일간 밤 9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했다. 둘째 날부터는 줄을 길게 늘어설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다. 조기에 물건이 다 소진돼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렇기에, 다음날 그 다음날은 더욱더 넉넉하게 준비하고 시민들을 맞을 수 있었다.

○ 좋은 일, '클로버마켓'을 열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퇴근하는 직장인들한테 좋은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한 '클로버마켓'을 개최했다. 클로버마켓은 작은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교환해 가는, 또 청년상인들과 퇴근하는 이들,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건 아니다. 이벤트를 통해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데, 다른 아닌 유관기관의 홍보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유관기관의 SNS에 팔로우를 신청하면 뽑기 기회를 제공하고, 뜻밖의 선물까지 챙겨주는 방식이다. 물론 기념품은 뽑기에서 나온 것을 가져가게 된다.

안 대표는 "저희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일을 만들려면 작은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단순하지만 행운의 기회를 통해 그날 하루만큼은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착역입니다

결과 공유회

여객열차에서 사용하는 열쇠를 베른키라고 한다. 문화1호선은 2020년 부평이 베른키를 쥐고 부천, 영등포와 함께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2021년에는 부천, 2022년 영등포, 2023년 수원이 주관도시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2023년 운행을 마무리하는 결과공유회가 12월 1일 수원메ッセ에서 진행되었다. 결과공유회의 부제는 <좋은 일을 만들었나요?> 이다.



「2023 문화1호선 기록영상 URL」

문화1호선의 공동 슬로건처럼 <좋은 일이 있어요>라고 외치고, 5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와 좋은 일을 만들며, 1호선으로 도시를 넘어 생활하는 이들에게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왔다.

2024년의 문화1호선의 베른키는 수원에서 의정부로 넘겨진다. 문화1호선의 재운행을 기대해본다.



연장운행

스탬프 투어

여행하고 선물 받는 문화1호선 스탬프투어

문화1호선

부평 부천 영등포 수원 의정부

- 01 스탬프용지 받기
부평역, 부천역, 영등포역, 수원역, 의정부역에 비치
- 02 여행하고, 스탬프획득
문화1호선 5개 문화도시 방문하여 5개역에서 도장 찍기
- 03 완주기념 교통카드 GET!
마지막으로 방문한 역에서 문화1호선 한정판 완주기념 교통카드 받기

문화1호선 이란?
철도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자산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문화적 삶을 높이기 위해 5개 문화도시 부평, 부천, 영등포, 수원, 의정부가 함께하는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스탬프투어(획득) 장소

- 부평역-2층 역무실
- 부천역-3층 역무실
- 영등포역-3층 여행센터 옆 종합안내소
- 수원역-2층 크리스피매장 옆 역무실
- 의정부역-3층 라이브러리센터 옆 역무실

문화1호선

‘문화1호선’은 다가가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이동이 행복하고, 타고 싶은 1호선의 기억을 갖게 해준다. 또한, 1호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사업들의 추진은 1호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도시의 문화를 공유해 지하철이 문화를 실어 나르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 도시가 문화로 가득한 곳임을 알리는 사업, ‘문화1호선’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이동에 기분 좋은 문화예술을 선사할 것이다. 1호선과 도시가 함께 달리는 문화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즐겨보자.

